美, 인종간 불교공동체 소통 부재

도심 명상센터, 유럽계 미국인 불자 전유물

다양한 인종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미국 불교계는 과연 그 다양성을 충분히 끌어안고 수행과 신행에 노력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양성 보다는 차별성에 주목,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 지가 11월 18일 미국 시애틀의 '유색인 불교공동체(People Of Color Sanghas)'의 활동을 다루며, 미국 불교계에서 백인 불교공동체와 유색인 불교공동체 간의 간극을 조명해 주목된다.

허핑턴 포스트 지는 보도에서, 인디언계 여성불자 테레사 파워스(Teresa Powers · 54)의 "유색인으로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가를 세삼 깨닫게 된다"는 말을 인용, "1967년 열린 세계불교승가심의회(World Buddhist Sangha Council)에서 처음으로 유색인 불교공동체 간의 통섭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40여 년이 흘렀지만, 그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테레사 파워스는 시애틀 캐피탈 힐(Capitol Hill) 지역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마련되는 명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명상 모임에는 아프리카계 · 인디언계 여성불자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을 뿐 벽안의 여성불자는 찾아 볼 수 없다.

"유색인 불교공동체는 지난 몇 년 사이 미국에서 12개나 생겨났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는 툴레 세라(Tuere Sala · 38) 지도법사는 "부처님은 차별성을 금기시했지만, 도심 명상센터 대부분 유럽계 미국인들의 독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는 유색인 불교공동체가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하며, 미국 불교계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 간의 차별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툴레 세라는 캐피탈 힐 지역의 유색인 불교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흑인계 미국인으로, Seattle Insight Meditation Society(이하 SIMS)의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애틀인사이트명상그룹(Seattle Insight Meditation Society) 대표 로드니 스미스 · Rodney Smith)가 지도법사를 파견, 후원하고 있는 캐피탈 힐 지역 유색인 불교공동체 명상 모임 모습.

"아프리카 · 인디언계 미국인 불자 소규모 수행 · 신행공동체 만들어"

샤론 수 시애틀대 교수, "두 불교 공동체 간의 소통, 가로막혀 있어"

허핑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미국 내 불자는 2백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두 가지 신앙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미국인의 신앙 패턴이다. 이민 2세이기도 한 그들은 1965년을 기점으로 출생했는데, 자신의 집과 사찰을 잇는 신행에만 몰두하며 환생이나 열반을 굳게 믿고 있다.

다른 하나의 신앙 패턴은 유럽계 미국인 불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문화적 관심으로써 불교를 배우며, 자신의 스트레스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명상 · 선 · 위빠사나 등 불교 수행법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샤론 수(Sharon Suh · 시애틀대) 교수는 "아시아계를 제외한 유색인 미국인들이 불교를 알고자 하는 바람이 커가고 있지만, 명상센터와 같이 그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 대부분 유럽계 미국인 불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색인 불자와 아시아계 및 유럽계 불자의 배움 정도의 차가 크다는 것 역시 두 불교공동체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풀이했다.

시애틀 유색인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만의 수행 프로그램을 최근 개설, 운영하고 있는 SIMS 대표 로드니 스미스(Rodney Smith)는 "불자라면 차별 없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개발하고 행복과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애틀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미국 전역에서 민족 간의 차별성이 그대로 수행과 신행의 영역에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양성 위원회(Diversity Councils)를 결성한 매사추세츠 불교공동체의 방법론에서 그 해법을 찾아봄직 하다"고 지적한 두란(Duran · 워싱톤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인종주의는 사람을 보는 매우 천박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상호 공동체 간의 소통이 원하라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현대불교학 연구 이끄는 선구자

세계의 불교학자(41)

라이용하이 중국 남경대 교수



중국의 불교학 연구는 1949년 공산화 이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단됐다. 1980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으로 현대불교학의 연구가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족의 정통성 회복 차원에서 중국불교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이용하이(賴永海) 중국 남경대 교수는 1980년대 현대불교학 연구를 앞장서 이끌고 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중국에서 불교가 성행하는 푸지엔성(福建省) 민난에서 1949년 출생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불교학을 접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1978년 사회과학원의 임계유(任繼愈)선생을 지도교수로 석사과정에서 중국철학을 전공하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라이 교수는 1965년부터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이 마무리되고 현대화로 변모하던 시기에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특히 승조(僧肇)의 〈조론(肇論)〉 가운데 〈부진공론(不眞空論)〉에 매료됐다. 이때 라이 교수는 불교에 유가와 도가철학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철학적 사유가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1982년 중국 대학에 최초로 박사과정이 개설되면서 라이 교수는 박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불교학을 연구하게 된다.

이때 라이 교수는 중국철학을 연구하면서 '불교가 어떻게 중국에 뿌리 내릴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대승불교만이 발전하게 됐는가' '중국 전통사상인 유가, 도가와 불교는 어떻게 융합하는 가' 등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여기서 그는 영국 옥스퍼드 인명록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든다. 바로 '중국불성론'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라이 교수의 '중국불성론'은 당시 중국 불교학계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단절됐던 불교학 연구를 재개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유(儒) · 불(佛) · 도(道)의 상호관계 속에서 중국불교의 전개를 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국불교의 전개는 중국철학의 전개와 나누어질 수 없으며, 서로 병행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불교학이 주류를 이뤘던 수 · 당대는 불교학의 내용과 깊이가 유 · 도 양가를 초월하고 있고, 송 · 명의 이학(理學) 역시 겉은 유가지만 속 내용은 불교를 표방하고 있었다. 때문에 라이 교수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서는 전체적인 중국철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전체적인 중국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불교에 대한 연구도 역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중화문화연구원 원장으로도 재직중인 라이 교수는 1991년 중국 국무원 학위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공헌을 한 중국박사'로 선출돼 1992년부터 국무원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1993년 박사생 지도교수로 선발됐으며, 2003년에는 국무원 학위위원회 철학과 평의원으로 선발됐다.

저작으로는 〈중국불성론〉 〈중국불교문화론〉 〈종교학개론〉 〈불도시선(佛道詩禪)〉 〈불교와 유학〉 〈담연(湛然)〉 〈불전집요(佛典輯要)〉 〈고승전석역(高僧傳釋譯)〉 등 15부의 저작이 있으며, 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핵심간행물에 게재했다. 이 밖에 〈중국불교백과전서〉(11권) 〈선학총서〉(2집 10권), 〈중국불교경전보장(中國佛教經典寶藏)〉(50권) 등을 주편(主編)했다. 또한 〈불도사상예의연구(佛道思想禮儀研究)〉로 미국 국가과학기금(N.S.F)을 받기도 했다.

'중국불성론'으로 인명사전에 등재 유 · 불 · 도 속에서 중국불교 전개 "중국철학 연구해야 중국불교 알아"

라이용하이 교수는 한 교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불교학의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중국불교학의 연구는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여러 가지 연구환경이 개선됐고, 또한 해외에서 유학한 많은 학자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새로운 내용과 연구영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한 다양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자체적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있어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나은 기자

마음챙김명상, 감기에 효과적

美 위스콘신-매디슨대, 연구로 검증

겨울철 자주 걸리는 감기를 명상으로 예방하는 것은 어떨까.

인도 통신사 PTI(Press Trust of India)를 비롯한 파키스탄 언론인 파키스탄 옵저버 11월 18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연구진은 8주 간 명상을 하거나 적절히 운동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마음챙김 (Mindfulness) 명상이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절감시키며 면역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49명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A그룹은 현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 마음챙김 명상을 진행했고, B그룹은 8주간 규칙적으로 조깅을 실시했다. 나머지 C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5월부터 9일까지 8주간 참가자들에게 감기 증상이 발견되면 3일 후 코분비물을 수집해 분석했다.

결과는 명상을 한 A그룹의 감기 발병 비율이 C그룹에 비해 76%나 낮았다. B그룹 또한 C 그룹에 비해 48%나 적게 나타났다. 이 밖에 추가적으로 명상을 한 그룹은 감기증상 지속기간 감소와 급성호흡기 감염 비율도 50%나 적었으며 운동을 한 경우는 40%정도 효과가 있었다.

연구를 이끈 부르스 배럿 박사는 "명상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50% 이상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운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30~40%의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명상의 효과를 입증했다"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시진핑 시대 개막… '친불교' 기대

아버지 · 부인 모두 불교와 인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사진〉가 중국의 새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외신 등 주요 언론에서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티베트 독립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친(親)불교 성향을 이용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티베트 독립까지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티베트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11월 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 설법에서 "시 국가 부주석 중심의 차기 중국 지도부가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달라이라마는 시 총서기의 친불교적 성향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위키리크스는 2011년 미 국무부의 중국 관련 외교 전문 내용을 근거로 "시 총서기는 지방에서 당서기로 일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특히 승려들의 기공과 초자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달라이 라마는 2011년 3월 인도 다람살라에 모인 기자들에게 "시 총서기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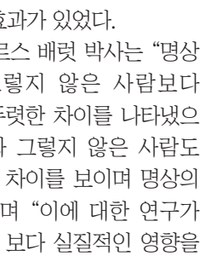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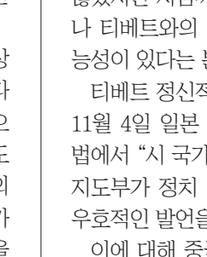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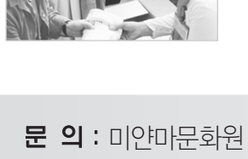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